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30.(목) 12:00
(지 면) 2026. 7. 31.(금) 조간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 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발표
- 2월 설 명절 연휴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 제고
- 겨울 지역 축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등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 확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월별 평균 생활인구*가 약 2천382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2월 생활인구는 약 2천582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98만 명으로 집계되어 등록인구(약 484만 명) 대비 약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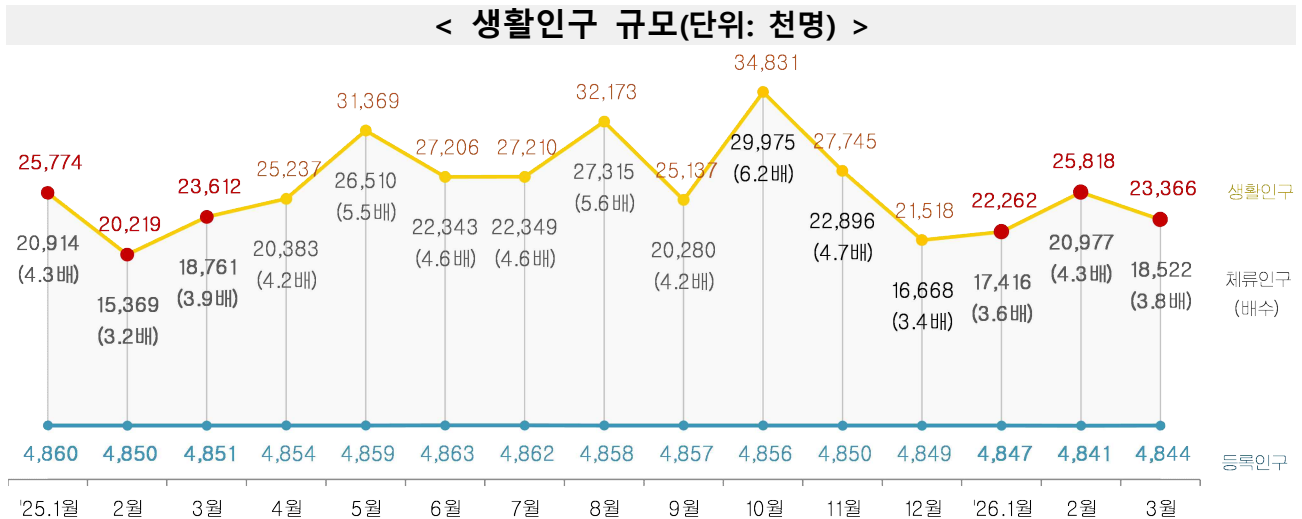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번 산정 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주요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설 연휴 및 문화·축제 효과로 생활인구 대폭 증가, 지역활력 제고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생활인구는 1월 약 2천226만 명, 2월 약 2천582만 명, 3월 약 2천337만 명으로 집계됐다. 1월과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2

월은 설 명절 전후 최대 5일간의 연휴에 따른 이동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생활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전체 생활인구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1월 강원 화천, 2월 충남 공주, 3월 강원 영월 및 전남 구례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가 방문객 유인에 기여한 덕분이다. 아울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촬영 배경지인 강원 영월 지역에 방문객이 급증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 1월 강원 화천 산천어 축제, 2월 충남 공주 군밤 축제, 3월 전남 구례 산수유꽃축제

** '26.2.4. 개봉, 누적 관객 수 1,691만 명, 조선 제6대 단종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영화로 단종 유배지인 강원 영월의 청령포가 촬영 배경지로 소개됨

>> 재방문을 및 카드 사용액 증가, 체류인구가 지역 경제 든든히 뒷받침

체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체류일수는 3.4일, 체류시간은 12.1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9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체류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2026년 1월 기준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을*은 대구 서구·남구, 경기 연천, 강원 양구, 전북 김제·정읍, 전남 영암·장성, 경북 고령·영천·성주·의성, 경남 함안 등 13개 지역에서 50% 이상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체류인구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당월 체류인구 중 직전 2개월 기간에 한 차례 이상 체류한 사람의 비율

예) 3월 체류인구 중 1월, 2월에 한 차례 이상 체류한 사람의 비율

소비 특성 측면에서도 체류인구의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증가해 분기 평균 12만 7천 원으로 집계됐다.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1월 32.6%, 2월 34.7%, 3월 32.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늘어났다.

한편, 시도별로 해당 지역 생활인구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약 25%에서 48%로 집계되어, 여러 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 못지않게 소비하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도별 주요 특성 현황 등 보다 세부적인 생활인구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활용 누리집(data.mods.go.kr/nowca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지난해 1분기보다 체류인구의 규모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인구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5-3501)
		담당자	주무관	김용희 (044-205-3519)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통계과	책임자	과 장	김근식 (042-481-6903)
		담당자	사무관	임병선 (042-481-3735)



'26년 1/4분기 한 눈에 보는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